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환희, 감격, 감사!

교회당 부지를 우리 눈 앞에 보이신 날

“오늘은 매우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9월 10일) 예배 시 당회장 이종윤 목사의 밝은 목소리에 성도들은 다소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다. “서울 교회 창립 이래 지금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해오던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역 부근에 우리 교회 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당 짓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던 성도들은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환호성이라도 지를만큼 기뻐하며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었다.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고 아름답기만 한데 우리는 그간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던가 하는 송구스러운 마음까지 일어났다.

예배당을 지을 터는 대한 기독교 감리회 목양교회에 있던 자리로, 목양교회는 경기도 수지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 현재 자리 옆 4층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를 우리 교회가 매입하게 된 것이다. 강남의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지역전도의 영역이 넓고, 전철역이 가까와 교통이 편리할 뿐 아니라 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 환경도 쾌적하다. 또한 종교부지로 되어 있어 건축에 하자가 없으며 지불 조건도 2년으로 되어 있어 이 모든 것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인줄로 믿고 받게 된 것이다.

이미 설계와 건축허가까지 받아놓았던 상태에서 주민들의 건축 반대와 담임 목사의 건강 악화로 어려움에 부딪힌 목양교회는 그간 기도하던대로 정원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도심지를 벗어나기로 결정하였고,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서 복음증거의 사명을 계승하기로 한 것이다.

목양교회는 지상 15층, 지하 25m로 교회를 지으려고 설계했었는데 건축을 반대하던 주민들은 최근 교회가 주민들과의 충돌없이 서울을 떠나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설계를 약간 변경하는 선에서 허락을 하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목양교회는 이미 수지면에 대지를

계약한 상태여서 그 땅을 서울교회에 이양케 된 것이다.

더욱이 이종윤 목사와 목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배상길 목사는 대학의 선후배 관계로 이번 일을 통해 상호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두 교회가 건축 뿐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해 형제교회로서 사명 수행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계약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모든 법적인 조항보다 우선한 계약의 조건은 “신뢰와 성실”이었다. 두 교회의 당회원들은 땅의 이양과 인수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는 듯했고, 이번 일을 통해 개교회나 교단을 초월하여 기도동지와 협력자가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였다.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가을 세미나

9월 21일(목) 22일(금) 양일간, 오전 6시 ~ 7시
내년도 교사 지망생들도 참여해야

교육위원회(위원장: 정병무 장로)에서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교회학교 교사들의 마음 가짐을 새롭게 하고 천국시민을 양성하는 교사들의 영적인 충전과 교육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21일(목)에는 원호 목사(교육위원회 지도) “21세기 교회교육과 그 대책”에 대해, 22일(금)에는

고용수 목사(장신대 교수)가 “효과적인 학습지도”에 대해 각각 강의한다. 세미나는 이틀 모두 새벽 기도회가 마치는 6시부터 1시간 동안 4층 예배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세미나에 현재 교회학교 교사 뿐 아니라 1996년도에 봉사할 교사 지망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 80회 총회

“세계와 함께 나누는 교회” 주제로

우리 교회가 소속한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 80회 총회가 오는 21일(목)부터 서울 명성교회당에서 열린다. 『세계와 함께 나누는 교회』하는 주제로 총대 1천 9백 6명이 참석하여 회집을 갖는 이번 총회에 우리교회에서는 이종윤 목사를 비롯, 김태기 장로와 박철훈 장로가 총대로 참여한다.

창세기 강해



하늘문이 열린다

(28장 10절 - 19절)

이종운 목사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시139:7-10)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브엘세바의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에게는 부모를 떠나 광야를 홀로 지나는 외로움과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했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온기와 어머니의 사랑을 뒤로 하고 마치 출구없는 방에 갇힌 것처럼 외롭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홀로 있지 않았습다. 그는 비록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을만큼 좌절감에 빠지는 때가 있지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자기를 비하시켜 자학하거나 열등감을 감추려고 과시하거나 위선자가 되어 자기 갈등 속에서 고민하곤 합니다.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없는 고아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야곱은 일찍이 이삭을 통해 축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참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13-15절).

I. 하늘문을 통해 야곱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계시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15절).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예답게 존경과

신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광야에 홀로 남은 매우 나약한 존재입니다. 고향집을 떠난 야곱은 베엘에 이르렀습니다. 피곤에 지친 그는 돌로 베개를 삼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시어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꿈 속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우리 말에는 사다리라고 표현되었지만 히브리말로 살펴보면 ‘경사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경사진 길을 통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이 야곱의 눈 앞에 펼쳐집니다. 범죄하고 도망치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도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롭지 않게 그리고 무섭지 않도록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II. 하늘문을 통해 야곱이 받은 또하나의 축복은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반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빈 손이 된 야곱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으니 이삭 역시 부자였을 것이고 야곱은 암전히 있었다면 그 부귀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잘못을 저지르고 광야에서 외로움과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의 죄값으로 고통이나 책망이 따른다면 그는 아마 견디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땅에서 다시 큰 재산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애통하고 있지만 큰 위로를 얻고 그의 생애에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계시 가운데 만나고 그의 약속을 은혜로 받았을 뿐 아니라 미래 천국까지 허락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천국을 허락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III. 하늘문을 통해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네 자손을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그의 계보를 통해 오실 메시아

로 인해 인류가 구원을 얻을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베엘에서 본 사다리 환상은 곧 메시아 비전입니다. 야곱처럼 절망, 두려움, 실직, 멸시 가운데 처한 성도가 있다면 울고만 있지 말고 하늘문을 통해 내려진 하늘 사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축복을 누릴만한 사람이 못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자손을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선한 행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활짝 열고 열린 하늘을 바라봅시다. 전후좌우를 바라보면 막혀 있어도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베엘(하나님의 집), 우리의 베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을 쌓읍시다.

✦ 순례자 칼럼 ✦

비판하지 말라

“너희 중 죄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져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의 흠어진 머리칼과 찢어진 옷자락을 흘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성난 군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조롱하던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네 눈의 들보를 먼저 뽑으라고 가르치셨다.

타인을 정죄하고 허물을 과장해서 저주해 버리기를 좋아하던 이들에게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일러 주셨다.

폭력과 폭언과 과장된 유인물들로 타인의 인격과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기행문

찬송하는 자연 요세미트 계곡(Yosemite Valley)

김 일 용 (집사, 모세선교회장)

1864년 미국 대륙이 좀더 나은 자유를 위한 남북전쟁(Civil War)으로 온 나라가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 유럽에서는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었고 일본에서는 명치유신의 깃발이 높이 들렸으며, 한반도에서는 이세 왕조 제 26대 고종왕이 7년간의 경복궁 재건이라는 대역사를 하고 있었다. 이 무렵 네바다(Sierra Nevada)의 요세미트(Yosemite) 계곡에 한 작은 교회가 세워졌다. 아마도 그들은 신비로운 대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것이다.

그로부터 꼭 116년이 지난 올 여름, 우리 교회 소망부 일행 27명의 순례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으신 모든 세계의 엄청난 절경을 목도하며 개척자들의 감격을 함께 하듯 소리 높여 찬송을 불렀다. 그 당시 찬송이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찬양한 것이었다면, 우리들의 찬양은 영혼의 자유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대자연의 절경에 사로잡혀 있었다. 세단계로 된 약 4200피트 높이의 폭포가 연쇄



적으로 떨어져내리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내려가는 듯

했다. 그 주변을 두르고 있는 20여 개의 거대한 화강암은 아름다운 계곡을 거대한 톱니바퀴 모양의 성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2700년 동안 자라고 자란 거목들과 온 지면을 덮은 원시림들은 그 수려함을 더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위엄과 신비... 인간의 말로 다 형용하기 어려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숨겨 앞에서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불렀다.

이 절경을 보전하여 후세에 전해주려고 심혈을 기울여 정성을 쏟고, 불굴의 의지로 지켜왔다는 미국인들의 말을 들으며, 우리의 금수강산은 어떠할까를 돌아보았다. 거대한 땅이나 민족적 지력이 아니라 몇몇 뜻있는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과 정열로서 오늘의 미국이 있는 것임을 새삼 깨달으며 우리 국토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요세미트 계곡 전지역의 절경을 뒤로하는 우리의 발걸음 위로 네바다 사막의 지평선에는 석양의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었다.

교회당 부지에 서서

여기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터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현재는 철거된 건물의 잔해들과 철거해야 할 건물로 지형과 그 규모를 한 눈에 보기 어렵지만 이곳이 바로 기도해 오던대로 멀지 않아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서울교회당"의 터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1995년 9월의 청명한 날 오후, 교회 부지에는 마침 자선 바자를 준비하느라 모인 목양교회 교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곳에 교회를 지으려던 목양교회의 교인들은 날마다 벽에 손을 얹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왔다고 한다. 목양교회 어느 성도는 "우리로서는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으나 교회 지으려고 기도하던 곳을 다른 사업

체가 아닌 교회가 인수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서울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해져 가길 바란다는 기원과 함께 "두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으니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목양교회의 또 다른 성도는 "서울교회의 가족수련회는 수지면에 정원(庭園)교회로 지어질 목양교회로 오시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목양교회가 수지로 이사하게 되면 아무래도 철야기도나 새벽기도는 서울교회로 오게 될 것 같다고 말하는 성도도 있었다.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 입을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 못지 않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왔을 목양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

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에겐 이제 땅이 보였을 뿐이다. 앞으로 그 땅을 위한 잔금을 지불하고 터를 닦고 잘 설계하고 튼튼히 건축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더 헌신해야 할 것이다. 좁은 예배당에서도 미루지 않고 감당해 온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시대적 책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고도 겸손하게 마음의 성전을 더욱 견고히 세워가야 할 것이다.

✿ 각 부서 이모 저모 ✿

일천명을 목표로 새롭게 출발하는 대학부

대학부(부장: 노문환 장로)는 원호 목사를 새 지도 교역자로 맞이하면서 새로 태어나는 마음가짐으로 대학부 부흥과 성장의 신호탄을 올렸다. 일차적으로 『회원 일천명』을 목표로 하고 양적인 부흥을 위해 힘쓰는 한편, 토요 집회를 열어 체계적인 성경공부와 전도훈련 등으로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오는 23일(토)에 4층 대학부 집회실에서 첫 모임을 갖는 대학부의 토요집회는 찬양의 시간과 성경공부, 기도회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히 신행일치의 삶을 훈련하게 될 성경공부를 통해 개인의 신앙 성숙 뿐 아니라 대학부 회원들간의 일체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전도와 선교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대학부 회장 권재현 군은 대학부의 젊은이들이 서울교회의 미래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교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학부가 되도록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실제적인 활동을 시작한 비전2000운동 실행위원회



비전 2000 실행위원회(위원장: 박철훈 장로)는 오는 10월 8일(주일)에 시작될 '95 비전 2000운동의 세부적인 행사 계획과 진행, 홍보, 전도, 기도, 교육, 안내, 재정 등 8개 분과의 조직을 완료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실행위원들은 동시 기도, 연속 기도 등의 기도 프로그램과 노방전도, 축호전도, 전도훈련 등 전도 프로그램의 진행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오늘 찬양예배 후 전체 모임을 갖기로 했다. '95비전 2000운동은 "만민에게 이복음을!" 이라는 주제로 11월 26일 승전감사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50일간 계속된다.

고등부, 다음 주일에 고 3을 위한 기도회

고등부에서는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4층 고등부 예배실에서 취업과 진학을 앞둔 고 3 학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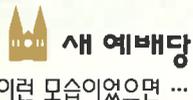
미래의 지도자가 될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실력을 쌓아가도록 기도로 격려하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이 기도회에는 취업과 진학을 앞둔 학생들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성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아직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가 채 잊혀지지 않았는데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마음 속에는 눈 내리는 성탄절에 울려 퍼질 <메시아> 찬양으로 가득하다.

올 성탄절에 아름다운 화음, 최고의 정성으로 엮은 찬양을 아기 예수께 선물하려고 봄부터 연습을 계속해 온 찬양대원들은 대장 김광신 장로의 기도와 지휘자 박정선 집사의 열정적 지도, 그리고 최근 폴란드에서 연수를 마치고 디프롬을 취득하여 귀국한 오르가니스트 조은주 집사의 재능이 한껏 어우러질 영광의 <메시아> 공연을 준비하며 '95 성탄절을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 기습 인터뷰



에 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기여했으면 합니다" (임진태 목사)

- "우리 교회 제일 첫번째 목표가 교육이니 만큼 천국시민을 양성을 위한 공간 확보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소그룹들이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배실과는 다른 분위기의 집회 장소를 두어 지역주민들도 언제든지 거리감없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기여했으면 합니다" (임진태 목사)
- "신식의 건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당이라는 고정 관념으로 외양과 장식에 치중하지 말고, 21세기에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에 걸맞는 현대식 건물로 말입니다." (최난수 권사)
- "신령한 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박한 아름다움이 배어나는 곳에서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마음 속으로 그려봅니다." (여현진 집사)

■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 ① 9월 18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이종운 목사) 제 2교시 / 음란 매개체에 의한 인성상실과 그 대안 (김용진 박사)
- ② 9월 25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이종운 목사) 제 2교시 / 기술사회에 의한 인성상실과 그 대안 (맹용길 박사)

■ 목회자 동정 ■

- * 이종운 목사는 지난 15일(금) 성신여대 이주용 총장 취임식에서 기도 순서를 담당했다.
- * 김재호 목사는 강동노회 소속 에덴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어 9월 24일자로 이임한다.
- * 전도위원회 지도에 이순환 목사가, 중등부와 5·6교구 지도에 원호 목사가 각각 임명되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Z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2. 목양교회를 위하여
3. 열 한개 교회학교와 교사들을 위하여
4.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한국교회의 영적 연합을 위하여
5. 북한의 주민들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